

하루에 6000여명,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3천만 명이 받은 여성할례

## 전통이라는 이름의 폭력, 여성할례(2)

장유진

### 거리로 뛰쳐나온 소녀들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만난 안마리(가명, 16세). 그녀는 할례가 무서워 도시로 도망을 쳤다. 얼마 전 안마리는 어머니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마을로부터 도망쳐 나와 프리타운으로 숨어들었다. “면도 칼을 이용할 때 멈출 수 없이 피가 아주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를 견딜 힘이 없다면 생명을 잃을 것이라 어머니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녀는 혹시나 가족들이 찾아올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최근 프리타운엔 안마리처럼 할례를 피해 도망쳐 온 소녀들이 늘고 있다.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눈을 피해 도시로 숨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성할례를 누구도 쉽게 비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자의 가족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에라리온에서 여성할례가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이유다. 정치가는 물론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공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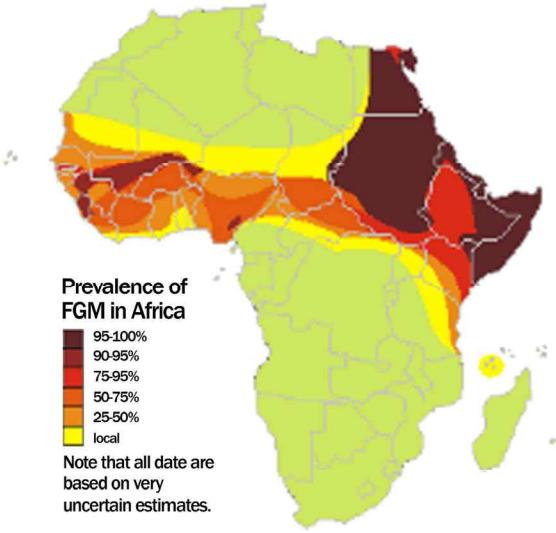
으로 반대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인권 보호 단체들 사이에서도 여성할례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시에라리온 인권 단체들의 주 관심은 10년 간의 내전으로 무너진 국가의 재건에 맞추어져있고 할례의 폐해에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나라 여성의 90% 이상이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것을 중요한 관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다른 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할례를 반대하는 인권단체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소속으로 30년째 할례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고 있는 올라잉카씨와 루기아투 투레씨. 그녀들은 시에라리온에 이 여성할례에 관한 침묵을 깰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루기아투 투레씨는 공개적으로 여성할례에 반대해온 이 사회 구성원 중 유일한 사람이다. 소녀들에 대한 할례를 멈추기 위해 그녀 혼자 100여 개가 넘는 마을에서 온 400여 명의 할례 집도인들을 교육시켰다. 루기아투가



할레반대 여성인권운동가 올라잉카 코사와 할레금지 포스터



아프리카의 할레국가 분포도

가르치는 많은 여자아이들은 10살 내외로 이들은 이미 할레 집도인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몇 년 후면 이 여자 아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른 여자아이들을 자르는 칼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아이들이 생계를 할레집도에 의존하는 한 여성 할레는 계속될 것이고 이들에게 생계를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성할레를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에라리온 외에도 이디오피아의 동부 지역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할레는 인퍼뷰레이션(infibulations, 음부봉쇄)으로 이는 세계 모든 할레 기술 중 가장 해로운 것이다.

올라잉카 코사씨의 말에 의하면 인퍼뷰레이션은 가장 과격한 여성할레이고 여성성기 주위를 전부 도려낸 후 이를 봉합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 인퍼뷰레이션을 한 여성의 건강은 아주 위험해 질 수 있고 결혼 후 출산 때 더욱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할레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들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 할레 받기를 더 원한다. 그래서 우리(인권

단체)는 여성할레의 위해성을 남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 외국인에겐 가장 위험한 취재

처음 여성할레를 취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취재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할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는 분위기에서였다. 취재하러 가기 전 자료조사나 섭외를 부탁해도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직접 만나서 설득하며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고 오히려 미리 얘기하다간 소문이 나서 더 위험하다고 조언해 주었다. 할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자체를 거절했으며 할레의식을 취재할 때에는 반대하는 무리로 인해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그외에도 많은 반대와 거부가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설득하며 겨우겨우 취재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8-9일을 예정으로 취재를 하던 중 결국 5일 만에 경찰에게 고발을 당해 취재를

이런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할례를 중요한 관습으로 여기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처 다 마치지도 못하고 떠나야 했다. 누군가가 경찰에게 외국인이 우리의 전통을 나쁜 의도로 취재해서 방송을 만들려 한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다녀오면서 아프리카에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받아야 하는 할례가 얼마나 인간의 무모한 관습에서 비롯되었나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할례란 성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을 말하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할례의식이 아닌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뜻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의식이 어떻게 여성에게 할례란 이름으로 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성적인 욕구를 줄여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임에도 수천 년을 유지하며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시에라리온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술사' 때문이라고 했다. 마을마다 있는 주술사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소사이어티'라는 여성단체 조직의 리더가 이 할례의식을 주도하고 지방에서는 주술사

에 의해 할례날짜와 방법 등이 정해진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무당과 같은 역할인데 이보다 더 많은 일에 관여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마을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靈)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지나치게 무서워하며 그의 말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여성할례라는 끔찍한 전통을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할례는 분명 문화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어서 오직 그 지역 사회의 의식변화만이 해법을 낼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야 NGO들이 재원에 접근할 수 있고 정치적인 후원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남성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도 힘써야 한다. 남성들이 변해야 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의식이 진정으로 멈춰질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없다면 여성 할례는 계속 될 것이고 매년 아프리카 내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례로부터 여성들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 15초 간격마다 한명의 여자아이가 할례를 받고 있다.



장유진 PD, (주)미코필름 대표, MBC해외시사 프로그램 W를 4년간 50여편 제작하였으며 'MBC스페셜', EBS '다큐 프라이밍'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이며 영상기획과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